

# “제 미인계에 빠져 볼래요?”

### 영화 ‘꾼’으로 스크린 데뷔한 나나

#### 현빈·유지태와 호흡 ... 22일 개봉

가수 겸 배우 나나(26·사진)가 스크린 신 고식을 치렀다.

오는 22일 개봉하는 범죄영화 ‘꾼’에서 매혹적인 외모를 지닌 사기꾼 춘자 역을 맡았다. 사실상 연기 신인인 그는 ‘꾼’에 함께 출연한 현빈, 유지태, 배성우 등 쟁쟁한 배우들 사이에서도 주목이 되지 않고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준다.

15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나나는 이런 평가에 대해 “선배 연기자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이라며 “연기에 대한 자신감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자신을 낮췄다.

그를 곁에 애프터스쿨 출신인 나나는 유지태 등 다른 멤버들에 비해 뒤늦게 연기자의 길로 들어섰다. 지난해 tvN 드라마 ‘굿 와이프’로 국내에서 처음 연기에 도전했고, ‘꾼’이 두 번째 작품이다.

“애프터스쿨 활동을 할 때 다른 멤버들이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연기 레슨을 받고, 혼자 공부했죠. 21살 즈음 연기를 처음 배웠을 때는 ‘넌 정말 연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는 타박도 많이 들어요. 오디션도 많이 봤지만, 매번 낙방했죠. 그럴 때마다 오기가 생겨 더 집중해서 공부했어요. 그런 시간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연기에 진지하게 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나나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라며 “자다가 일어나서도 곧바로 대사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본을 많이 보고 혼자 많이 연습한다”고 말했다.

170cm의 큰 키에 늘씬한 몸매, 작은 얼굴, 발달된 미소가 인상적인 나나는 자신의 매력을 스크린에서도 한껏 발산한다. 미인계로 상대를 속이고, 정보를 빼낸다. ‘굿 와이프’에서 그가 맡은 역할인 로펌의 조사원 김단과 연상선에 있다.

나나는 “그런 역할이 주어 진 것만 해도 감사하다”면서 “연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겉모습도 아름답게 유지하려고 항상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피부관리를 받거나 필라테스, 스마 등 다양한 운동을 한다”면서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배우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웃었다.

나나는 자신의 멘토로 전도연을 꼽았다. 두 사람은 ‘굿 와이프’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다. “지금도 연기에 대해 궁금할 때마다 전도연 선배님께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네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조언해주시죠. 선후배 사이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끈끈한 애정이 생긴 것 같아요.”

나나는 자기작으로 SBS ‘별에서 온 그대’를 히트시킨 장태우 PD가 연출하는 드라마 ‘사자’의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이번에는 여형사 역이다. 나나는 “김단과 춘자를 섞어놓은 듯한 캐릭터”라면서 “앞으로 로맨틱 코미디, 액션, 멜로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온통 연기 생각에 몰두하는 그녀에게 “연에는 언제 하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간 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연을 만나는 게 쉽지 않네요. 인연을 만난다면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하”



연합뉴스



tvN 수목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한 장면.

# “응팔”보다 더 정성들여 만들었죠”

### 신원호 PD·이우정 작가 신작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 ... 22일 첫방영

“지금까지 그 어떤 드라마보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힘들게 지은 세트장을 나중에 부숴 생각을 하면 아까워서 눈물 날 것 같아요.”

오는 22일 첫 방영하는 tvN 수목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연출을 맡은 신원호(42) PD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응답하라 1988’ 등 ‘응답하라’ 시리즈로 대박을 친 신원호 PD와 이우정 작가의 신작이다. 신인을 발굴하는 데 탁월한 안목을 지닌 신 PD는 이번에도 연극배우 박해수를 주인공으로 발탁한 이유에 대해 “캐릭터에 가장 부합하는 외형과 연기력, 인성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A급’이 이 세 가지 기준에 맞다면 캐스팅하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여자친구 사귀는 때 어때요? 부모님과 관계는 어때요?’와 같은 배우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못하겠더라”고 말했다.

배우 정경호를 엘리트 교도관 이준호 역에 캐스팅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신 PD는 “신인인 박해수가 원톱 주인공으로 정해지면서 나머지 역할에 인지도 있는 배우를 캐스팅하는 건 포기했다. 그런데 10년 넘게 주연을 해온 정경호가 어떤 역할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드라마는 슈퍼스타 야구선수 김재혁(박해수 분)이 하루 아침에 범죄자가 되어 들어간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블랙코미디다. 이번 작품으로 데뷔하는 정보훈 작가가 감옥을 배경으로 하자고 의견을 냈다고 한다.

신 PD는 “급기의 공간이라 굉장히 신선할 것 같았다”며 “작년 4~5월부터 실제 감옥에 다녀온 분들을 솔하게 인터뷰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존 드라마에서 감옥은 주인공이 벗어나야 할 ‘안



신원호 PD

티’로만 가능했지만, 저희는 감옥에서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했다”며 “감옥에서 아침에 일어나 할 때 어떤 노래가 나오고, 밥은 어떻게 먹고, 들어갈 때 방문검사는 어떻게 한다는 디테일이 ‘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잡는 코미디는 아니지만 유머러스함을 넣으려고 노력했다. 궁극적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며 “(범죄자가) 미화되지 않겠냐고 걱정해주시는 걸 잘 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감옥을 배경으로 한 만큼 박근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수감된 2017년의 단면을 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내저었다.

신 PD는 “풍자는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해야 용기 있고 재미있는 건데 지금은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환경이라 그렇게 매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범탈’(경제·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용자를 일컫는 은어) 이야기를 잠깐 할 수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응답하라” 시리즈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응답하라 1988’ 때 군사정권 시절 대학생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이웃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쉽지 않았다”며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그런 쪽 이야기에 쫓기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답하라 시리즈는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다큐멘터리 3일	50 밤상 차리는 남자 스페셜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국제상 수상작 시리즈 바다의 제국 50 UHD 한식	50 내 남자의 비밀 (재)		00 애니컬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산		00 돈꽃(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형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농부 라비			55 닥터 365
2	20 반지의 비밀일기 50 팔도발상 스페셜	00 생생정보 스페셜 5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똑? 똑! 키즈스쿨	00 뉴스브리핑
3	05 2017 목표가요제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00 뽀글아 사랑해 (재) 30 헬로키키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4	00 4시 뉴스집중		00 MBC 파워매거진	00 여행배틀 로그인 코리아 (재)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5 숨터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토이카 15 터닝메카드 R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00 살맛나는 세상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나눔의 행복. 기부 55 UHD 한식	30 2TV 생생정보	10 천년의 전라도 스페셜 20 MBC 뉴스데스크	00 정글의 법칙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내 남자의 비밀	00 MBC 스포츠 2017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마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닥터 하우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40 KBS 스페셜 - 21세기 한국의 생존전략 스마트 제조업			
10	35 KBS 뉴스라인	00 매드독	4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00 당신이 잠든 사이에
11	00 청소년드라마 <안단테>	10 고백부부	00 청사특집다큐 아리랑도도 7332km	10 자기가 백년송님
12	0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50 인간극장 스페셜	15 세상의 모든 다큐	00 TV예술무대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40 다문화 고부 열선 스페셜	14:30 레인보우 루비
05:30 통일의 길 <북한의 의료실태>	10:30 한국기행(재)	15:00 로봇 발명왕 러스티
06:0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토마토 대구스튜와 양배추절임)	15:30 호기심 나라 오키도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45 레전드러이로 삼국전
07:00 레인보우 루비	12:00 EBS 정오 뉴스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10 장수의 비밀 <겨울 기획 '동고동락' 1편 - 여든넷, 동감내기 삼총사>	16:30 수확이 아호(재)
07:45 출동! 슈퍼웬스	12:40 지식채널e	16:45 땃땃 땃땃(1~2재)
08:00 땃땃 땃땃 1~2	12:45 명의(재)	17:15 웅감한 소망자 레이
08:30 똑딱맨	13:40 EBS 특별기획 시대의 대화 <국문화자 조동일 - 문화 통해 삶의 진실을 본다>	17:30 똑딱맨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17:45 뽀롱뽀롱 뽀로로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18:00 생방송 토크! 보너스니~4
09:15 엠마 까투리(재)		19:00 사이언스타 Q
09:30 물랑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다큐 오늘 (시열림 먹거리 채취)
		20:50 세계테마기행 <첫 날 내리면 시베리아 4부 - 알타이의 후예들>
		21:30 한국기행 <가을에 더 울주 간절꽃 바닷가 보물이어라>
		21:50 과학 다큐 비온드 <신 골드러시, 달 탐사>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불랑시니클럽
		24:05 지식채널e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6일 (음 9월 28일 丁未)
子	48년생 전문적인 식견과 정보로써 판단할 이다. 60년생 과정은 험물다라다 결실은 양호하리라. 72년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한국에 놓여 있다. 84년생 능률적인 사세로의 전환을 이끄는 확실한 암시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0, 58	42년생 황금 골짜기에 이르게 된다. 54년생 미진하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66년생 일부나마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78년생 진면모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재량을 피해야 할 수 있다. 90년생 타격을 받지는 않으니 무시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94, 11
丑	49년생 구에 거슬러도 따르는 것이 맞다. 61년생 뜻이 있다면 앞뒤 재지 말고 기탄없이 제게 불 필요가 있느니라. 73년생 신속하게 처리하면 상당한 재물을 얻을 수 있느니라. 85년생 돈의 운수에 따라서 갈증이 좌우되리라. 행운의 숫자 : 76, 09	43년생 실효적인 조치들이 지속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55년생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겨야겠다. 67년생 반기운 소식 있겠다. 79년생 마무리가 시원치 않다면 가지가 허락한다. 91년생 기회 가 될 것이니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0, 01
寅	50년생 오매불망으로 학수고대하여 왔던 바를 반갑게 맞이하리라. 62년생 한 번 나타난 정황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74년생 실행해야 할 시기가 효과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86년생 미약해 보여도 큰 힘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0, 44	44년생 상호 관련시키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56년생 마무리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명심하자. 68년생 진전은 되지만 성과가 시원치 않을 수도 있다. 80년생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나의 여부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39, 91
卯	51년생 집착을 버려야만 새로운 도모할 수 있음을 알라. 63년생 용기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실행하라. 75년생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타협할 수도 있다. 87년생 잠만 활용한다면 편안한 결과를 낳는다. 행운의 숫자 : 15, 03	45년생 눈앞에서의 현혹은 허황된 것이니 빨리 접을수록 이익이다. 57년생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헛수고로 귀착될 모양새이다. 69년생 가끔씩 빨리 청산할수록 이익이다. 81년생 실현 가능하므로 기대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54, 67
辰	52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모두 생길 수도 있음을 감안하라. 64년생 확실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걸림돌로 작용한다. 76년생 지나치게 내세우다 보면 위축될 수 있겠다. 88년생 분수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털고 일어서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5, 94	46년생 서두르다만 번뜩음을 보이고야 말 것이다. 58년생 두각을 나타내면서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이다. 70년생 주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후회한다. 82년생 현재의 정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언정 내버려 두고 상관없다. 행운의 숫자 : 49, 38
巳	53년생 순진적인 착각에서 기인한 변화의 시도가 문제다. 65년생 가장 쉬운 것부터 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77년생 빠른 속도로 행운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89년생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목전의 상황에 충실하자. 행운의 숫자 : 64, 69	47년생 표출하지 말고 흡입해야 할 시기이니라. 59년생 실행하는 기법에 따라서 천차만별하게 될 것이니라. 71년생 아무리 마음 급하더라도 깊이 고려한 다음 모색하는 것이 안전하다. 83년생 치밀한 분석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67, 6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